

5세대 실손보험 Q&A

2026. 5.

금융위원회
금융감독원

목 차

<5세대 실손>

- 1. 보장범위 축소로 실손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? 1
- 2. 비중증 비급여(특약2)에서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보장을 제외한 이유는? 2
- 3. 보장이 넓은 1·2세대 등 기존 실손보험 상품이 5세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지? 3
- 4. 5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등은 보험사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? 4
- 5. 특약1과 특약2를 선택해서 가입 가능한지? 5
- 6. 보건당국에서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를 추진한다는데 실손 개편과의 관계는? 6
- 7. 기존 실손보험(1~4세대)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한 이후 마음이 바뀌어 이전 실손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? 7

<구세대 실손 관리방안>

- 8. 선택형 할인 특약의 가입 유인이 충분한지? 8
- 9.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는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? 11
- 10. 선택형 할인 특약으로 인해 특약 미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? 11
- 11. 1·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면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한지? 12
- 12.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의 가입가능 기간은? 12
- 13. 선택형 할인 특약이나 계약전환 할인제도 운영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? 12
- 14. 계약전환 할인 제도의 혜택 예시(3년 50% 할인)가 5세대 전환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지? 13
- 15. 선택형 할인특약 및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'26.11월부터 시행하는 이유는? 13

1. 보장범위 축소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?

- 5세대 실손에서는 비필수적인 과잉의료 방지 등을 위해 비중증 비급여 등에 대한 보장이 축소됨에 따라, 동일한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음
- 다만, “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”로 보장이 제공되므로 전반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
 - * 실손보험 가입자의 65%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으며, 보험금 수령 상위 10%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% 지급(14개사, '25년말)
- 또한, 5세대 실손상품은 보편·필수적 치료(급여 및 중증* 비급여 등)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음
 - * 암, 뇌혈관·심장질환,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(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, 복지부 고시) 대상 질환
- 아울러, 비필수적 치료에 대한 보장범위를 축소한 5세대 실손을 통해 의료시장의 가격기능이 복원될 경우,
- 시장경쟁에 의해 의료비용 수준이 합리화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2. 비중증 비급여(특약2)에서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보장을 제외한 이유는?

- 도수·체외충격파·중식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비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잉진료 우려가 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서, 보험금 누수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있음
- 그간 많은 노력¹⁾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해당 치료의 보험금 비중이 높게 유지²⁾되고 있어, 5세대 실손에서는 해당 치료를 특약2(비중증)의 보장대상에서 제외
 - * 1) 3세대 및 4세대 실손에서 별도 항목(3대 비급여 특약)으로 분리하여 연간 보장 횟수 및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
 - 2) '25년 실손보험금 중 비중 :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 및 주사제 : 27.3%, 암관련 치료비 : 12.8%
- 다만,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기존(4세대) 보장범위를 유지함으로써 보장을 두텁게 유지
 - ※ 미등재 신의료기술의 경우에도 비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등에 따라, 특약1에서만 보장
→ 보건당국에서 추가 심사 등을 거쳐 비급여 등재시 특약2에서도 보장

3. 보장이 넓은 1·2세대 등 기존 실손보험 상품이 5세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지?

□ 1·2세대 등 기존 실손보험상품은 '보험료가 비싼 대신 보장이 넓은 상품'이며, 이러한 특징이 일반적인 소비자*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

* 실손보험 가입자의 65%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으며, 보험금 수령 상위 10%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% 지급(14개사, '25년말)

○ 가령, 1·2세대의 광범한 보장구조는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의 큰 원인*으로 작용하며, 이는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특징임

*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타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많을 경우, 보험료가 인상

□ 따라서, 비필수적 치료에 대한 의료이용량이 적거나, 과거 실손상품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계약자라면 5세대 실손보험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*

*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30%, 1·2세대 상품보다는 50% 이상 저렴

4. 5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등은 보험사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?

□ 실손보험 개혁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의료 정상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, 보험사의 이익 개선 등과 무관*

* 수지상등 원칙에 따라 '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 보험료도 인하'되므로 보장 합리화로 인해 보험사 이익이 늘어나지 않음

○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제도 개선보다는 손해율만큼 보험료를 인상*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

* 현재는 위험구분 단위별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연 25%내로 제한

□ 5세대 실손에서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 합리화* 등을 통해 비필수적 치료에 대한 과잉의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 보장한도 축소(5천만원 → 1천만원), 자기부담률 상향(30% → 50%) 등

○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(지급보험금 감소액)은 보험료 인하*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될 예정

*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30%, 1·2세대 상품보다는 50% 이상 저렴

5. 특약1과 특약2를 선택해서 가입 가능한지?

□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계약 (급여)과 비급여 특약(특약1·특약2)을 분리하여 운영

- 소비자는 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기본형 실손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특약1 또는 특약2만 선택하여 가입하거나 특약 1·2 모두 가입할 수도 있음

< 5세대 실손 가입 유형 및 보장범위 >

가입 유형	실손 보장범위
주계약	급여 치료비
주계약+특약1	급여+중증 비급여 치료비
주계약+특약2	급여+비중증 비급여 치료비
주계약+특약1+특약2	급여+비급여 전체 치료비

6. 보건당국에서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를 추진한다는데 실손 개편과의 관계는?

□ 관리급여*로 선정 시, 건강보험에서 95%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고 표준가격이 설정

* 과잉이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이용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선정

-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시, 도수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손보험에서도 급여로 보상

- 즉, 실손가입자가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20%만 부담하고, 통원의 경우에는 95%를 부담

□ 한편, 「선택형 할인 특약」의 근골격계 물리치료(도수치료 포함)·체의 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면책 옵션을 선택할 경우,

- 근골격계 물리치료(도수치료 포함) 등은 급여·비급여 지정여부와 관계 없이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으며,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시 건강보험만 적용되어 95% 본인부담률이 적용

<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 >

구분	정의
급여(요양급여)	· 건강보험이 통상 적용되는 기본 진료
선별급여	· 보장 필요성은 있지만 경제성·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추가검증이 필요한 진료
관리급여	· 과잉·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중 가격·기준·이용량 관리가 필요한 진료
비급여	· 급여에서 제외되는 진료

7. 기존 실손보험(1~4세대)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한 이후, 마음이 바뀌어 이전 실손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?

- 계약전환을 청약한 후 ①6개월 이내 전환청약을 철회하고 ②동 기간 무사고시 전환 전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음
 - 다만,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라도 전환 전 계약으로 복귀 가능
- 이 경우 전환 후 계약과 전환 전 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,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환 전 계약에서 보장
- 5세대 실손은 특약별 보장한도와 범위가 상이하고, 선택가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가입자의 의료이용 성향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입할 필요

8. 선택형 할인 특약은 계약자들에게 가입 유인이 충분한지?

- 「선택형 할인 특약」은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‘불필요한 보장’(3대 비급여 등)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임
 - * ①근골격계 물리치료·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, ②비급여 MRI/MRA, ③자기부담률 20% 적용
- 초기 실손 가입자 중 고액의 보험료 부담*으로 인해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료이용량 등을 감안하여 가입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
 - * A 손보사 기준 60대의 1세대 실손 월 평균 보험료는 남자 15만원, 여자 20만원 수준
 - 예를 들어, 1세대 계약자는 비중증 치료인 3대 비급여와 자기부담률 20% 옵션을 모두 선택할 경우, 약 40%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큰 폭의 보험료 부담 경감 가능
- 또한, 「선택형 할인 특약」은 출시 이후에도 기존 실손의 보장을 지속 향유 하다가 추후 가입이 가능*하므로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선택권을 제공
 - * 다만, 선택형 할인 특약 가입은 1회만 가능

참고

소비자 판단 기준(예시, 선택형·계약전환 할인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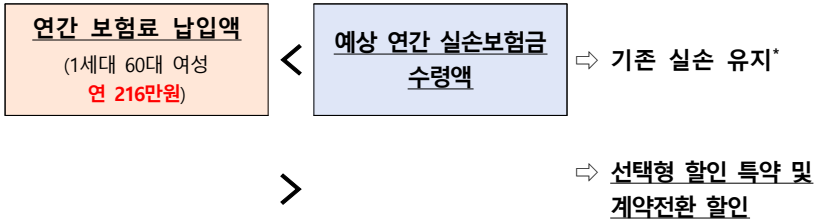
◇ 소비자는 과거(예 : 3년) 실손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수령액과 향후 의료 이용 계획 등을 개인의 사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필요

< 선택 예시 > ※ 예시의 단순화를 위해 1개년도 보험료와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시

1 기본적 고려

: 「**연간 실손보험료 납입액**」과 「**예상 실손보험 보험금 수령액**」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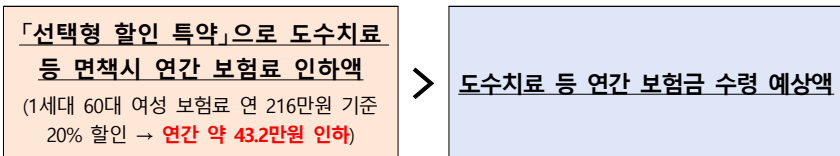
* 예상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과거(예: 3년) 보험금 수령액과 가족력 및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한 의료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계산 → 5세대 실손보험도 중증 질환은 충분히 보장됨을 감안할 필요



* 현재는 실손 이용이 적으나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

2 「선택형 할인 특약」과 「계약전환 할인」을 고려하는 소비자 예시

① (Case1) 향후 의료 이용 가능성 등으로 기존 실손을 유지하고 싶으나, 도수치료 등 이용 수요는 적은 경우 → 근골격계 물리치료 등 면책 옵션만을 선택하는 「**선택형 할인 특약**」 가입(보험료 약 20% 할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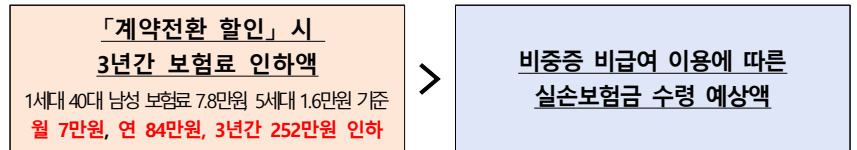


② (Case2) 중증 등으로 치료가 예정되어 있지만, 해당 병 치료 이후 실손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→ 기존 실손의 보장을 향유하고 치료가 끝난 후 「**선택형 할인 특약**」에 가입

* 다만, 선택형 할인 특약은 1회에 한해 가입 가능

③ (Case3) 청년층으로서 향후 비중증 비급여 등의 의료 이용이 많이 예상되지 않고, 기존 실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싶은 경우 → 「**계약전환 할인**」*을 통해 5세대 전환

* 다만, 계약전환 할인은 '26.11월부터 6개월간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 예정



※ 1:2세대 및 5세대 실손과 「**선택형 할인 특약**」, 「**계약전환 할인**」 보험료(예시 : 60대 여성)

(단위: 원)

현재 월보험료 ¹⁾	선택형 할인특약·계약전환 등 선택 후	
	선택시 월보험료(예시)	
1세대 178,489	선택형 특약가입(옵션 1~3 전부가입시) ¹⁾	
	전환할인(전환후 3년간) ²⁾	
	5세대 전환 ³⁾	
2세대 126,773	선택형 특약가입(옵션 1~3 전부가입시) ¹⁾	
	전환할인(전환후 3년간) ²⁾	
	5세대 전환 ³⁾	

* 1) 선택형 특약 가입시 할인은 추후 변동 가능

2) 전환 후 3년이 도과한 시점부터는 할인혜택 종료(5세대 보험료의 100% 납부 필요)

3) 기존 계약 및 5세대 보험료 수준 등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(6개 대형 손보사 기준)

9.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는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?

-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하는 것으로서, 의무 가입사항이 아님

10. 선택형 할인 특약으로 인해 특약 미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?

- 선택형 할인 특약이 도입되더라도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 집단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산정할 예정
 - 보험료 조정은 전체 계약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고, 특약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
- 따라서, 할인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 - 오히려 선택형 할인 특약에 따른 의료이용량 감소시 전체 계약자의 추가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 가능

11. 1·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면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한지?

-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재가입 조항이 없는 2013년 3월 이전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(약 1,700만명)를 대상으로 시행

12.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의 가입가능 기간은?

- '26년 11월 출시 이후,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간 제약없이 가입이 가능하고, 계약전환 할인 제도는 6개월간 가입 가능(6개월간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)

13. 선택형 할인 특약이나 계약전환 할인제도 운영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?

- 선택형 할인 특약이나 계약전환 할인을 신청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청약 철회*가 가능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
 - * 3개월 내 철회는 조건 없이 가능하며, 3개월 이후는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 가능
- 소비자가 충분히 제도를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GA 등 판매채널 일선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면밀히 감독할 예정

14. 계약전환 할인 제도의 혜택 예시(3년 50% 할인)가 5세대 전환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것이 아닌지?

- 계약전환 할인제도의 혜택은 재가입 주기 없는 **1·2세대 실손이 5세대 실손으로 전환됨에 따른 보험사의 경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최대한 소비자에게 유리한** 방향으로 협의
- 일부에서는 초기 실손이 보장범위가 넓으므로 5세대보다 가치가 큰 계약이라고 생각하나,
 - 보험료가 갱신되는 실손계약의 특성상 초기 실손은 보장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료가 높은 상품이며, 소비자 관점에서 세대별 상품간 우열을 가리기는 곤란*
 - * 손익 관점에서 상품 출시가 오래된 1·2세대가 3·4세대 대비 손해율이 안정화된 특징을 가짐 → 보장 범위와 손해율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
- 또한, 실손보험 이용이 적은 계약자일수록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통한 **5세대 전환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사에 불리**

15. 선택형 할인 특약 및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'26.11월부터 시행하는 이유는?

-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의 경우, **적정한 요율 산출 및 상품·전산시스템 개발** 등을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
- 이에 신규 출시된 **5세대 실손의 안정화 기간과 보험회사 시스템 준비기간*** 등을 고려하여 '26.11월부터 시행 예정
 - * 현실적으로 5세대 실손 출시와 함께 선택형 할인특약 및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